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일·가정 더불어 행복 Double Up”

2017-02-28 오후 12:29:25

마포타임즈 ✉ mapodesk@hanmail.net



(제공=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은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일·가정 더불어 행복 Double Up’이라는 주제로 전직원 대상 가족친화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수원교육희망 네트워크 다니엘센터 이주희 센터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우리의 행복지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일과 가정의 균형’, ‘일·가정 갈등 해소 전략’ 등의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공단의 ‘가족친화기관 인증’ 추진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현장 및 서류심사, 기관장의 관심도, 직원들의 만족도 등 다양한 평가로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영식 이사장은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에서의 행복이 일터로 이어져 즐겁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공유

<저작권자©마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2-28 12:29 송고

<http://www.mapotimes.co.kr/news.aspx/365498>